

‘출범 1년 지났는데...’ 광주 복구시설공단은 아직 걸음마

복구 출자 지방공기업, 첫 점검서 주의·시정 43건 내규 어긋난 수당 지급에 기본 회계 업무도 미숙 공공요금 납부 지연도... “체계 구축·개선 힘쓸 것”

광주 복구 출자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출범 17개월을 맞았지만 어설픈 업무 처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복구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복구는 산하공기업 지도 점검에서 확인한 주의·시정 사항 43건 내역을 공단에 통보했다.

최근 복구는 공단이 공식 출범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업무 처리 내역 전반을 들여다봤다. 산하 공기업에 대한 첫 지도 점검이다.

점검 결과 내부 규정과 예산 범위를 어긋난 각종 수당 지급 행태가 다수 확인됐다.

관리 규정에 없는 위험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시간 외 수당이 규정 내 한도를 벗어나 초과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퇴사자에게

가족 수당을, 공단 사무실 근무자에게 ‘파견’ 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지적됐다.

지출 세부내역서·결의서·매출전표 서명 날인 누락 등 기본 회계 업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채용 서류 보관 미흡, 예비 부적정 지급, 물품 관리 소홀(수급관리계획 수립·전산화 지연), 주요 계약 업무 일일 감사 미실시 등도 지적 사항에 올랐다.

공단 본연의 시설 운영·관리 위탁 사무도 미흡했다.

종량제봉투 등 수입 관리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위탁관리 문화·체육시설의 공공요금·물품 임료(렌탈비) 납부가 밀린 사례도 있었다. 주차요금 일일 결산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위탁 시설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구의회에서는 ‘복구 관리·회계 등 기본 행정 업무도 안 되는 것이냐’, ‘폐기물 수거·처리 업무 등 3단계 사업 위탁을 앞두고 관리 능력이 의심된다’ 등 우려 섞인 질타가 이어졌다.

공단 측은 현실적인 업무 여건과 수당 내규 간 괴리, 중병 서류 일부(수당 지급 사유 기재) 관리 미흡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가족 수당이냐 파견 근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환수 또는 내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회계, 근로계약서 작성·채용서류 구비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대부분 개선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설립 초기라서 주차장 정산 체계 구축, 사무 관리 전산화 등이 부족한 점도 일부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직원 대부분이 입직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조직 구성과 인수인계, 공단 운영 업무까지 병행하다 보니 미흡함이 있었다”며 “지도 점검 내용 대부분을 개선하고 있



광주 복구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있는 규정은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공단의 핵심 비전은 ‘청렴’이다.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족한 점은 충분히 보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

안전 체전 치른다... 전남도 ‘디지털 성범죄 차단’ 온힘

전남도가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장 불법 촬영기 기검점에 나섰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6월부터 체전 기간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전남도와 22개 시·군 체전 담당부서, 환경부서, 경찰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22개 시·군에 분산된 전국체전 경기장 70곳과 장애인체전 경기장 38곳의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 편의시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전파탐지기·적외선탐지기·렌즈탐지기 등 탐지장비를 활용해 정밀 탐색하고 육안으로 화장실 칸 내벽이나 천장 등 의심되는 물체와 흔적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취락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의 경각심을 알리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불법촬영 수사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첫 공공 심야어린이병원, 광주기독병원 선정

9월1일부터 평일·휴일 24시까지 소아경증환자 진료

광주 첫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광주기독병원이 선정됐다. 오는 9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기관인 광주기독병원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지원사업 협상을 지난 22일 마무리하고, 사업자로 광주기독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조건 충족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광주기독

병원은 9월 1일부터 평일과 휴일 24시까지 소아청소년환자를 진료하는 광주시를 대표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오는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광주기독병원에 운영비·홍보비 등 경상적 보조비용으로 시비 28억8000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기독병원은 나머지 경상적 사업비 5억3000여만 원과 발생하는 자본적 경비 전

액을 자체부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강기정 시장의 ‘손에 잡히는 변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이다. 최근 발생하는 어린이병원 오픈런 진료대란,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등의 위기를 맞은 소아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추진했다.

이번 광주시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선정으로 지역 내 소아경증환자의 야간·휴일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비용부담,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이 최소화하고 소아경증환자 분산을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로컬어린이병원·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24시 이후 발생하는 중증응급소아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어지는 지역 연결적 어린이 안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성공적 운영으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공군 1전투비행단, 6·25 73주년 맞이 11km 행군 “가슴 아픈 역사 되새기고 안보의식 중요성 고취시키고자 계획”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23일 6·25전쟁 73주년을 맞아 전 장병과 군무원이 함께하는 행군을 진행했다.

1전비는 6·25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장병들의 단결력을 고취시키고자 기지외곽 도로를 포함한 11km 거리를 행진했다.

1전비 장병들은 행군에 앞서 6·25전쟁 결의문을 복창,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군인정신을 되새기고 영공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행군에는 1전비 광주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607 군수장비관리대대 부대원도 함께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등 의미를 더했다.

이태규 1전비단장은 “이번 행군은 올해 73주년을 맞이한 6·25전쟁의 가슴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계획됐다”며 “1전비 장병들이 단결력을 강화하여 조국 영공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23일 6·25전쟁 73주년을 맞아 전 장병과 군무원이 함께하는 행군을 진행했다. (사진 = 공군제1전투비행단 제공)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용운(521112-1659218)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2023년단3649 상속한정승인
공고인 : 김태령
한정승인수리일 : 2023. 6. 19
공고기간 : 2023. 6. 26. ~2023. 8. 26
주소 :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665번길 26, 202동 810호 (소촌동, 서라2차아파트)
김태령 ☎ 010-4849-2735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법실수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진다.

국민이여! 남몰래 지켜봐주세요.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저소득층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험료부담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 홈페이지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